

대림산업, 하도급 불공정 행위로 동반성장 최우수 박탈

3년간 700곳 넘는 중소기업에 '갑질' 3단계 낮춰진 '양호' 강등 될 듯

3년간 700곳이 넘는 하도급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난 대림산업이 결국 '최우수' 동반성장 등급을 박탈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규모 불공정행위 및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고, 이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 강등'을 9월 초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나온 '2018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림산업은 이번에 대규모 갑질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두단계 낮은 '양호' 단계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동반위는 운영기준에 따라 대림산업에 대해 등급강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약 4만건에 달하는 대림산업의 하도급 거래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2897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위반 행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으로 대림산업은 이 기간 총 759개 수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대림

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50%와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 설문조사' 50%를 합산해 전년의 결과를 이듬해 상반기 말에 산정·공표한다.

다만 이번처럼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해 '등급강등'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그때 그때 취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나온 후 3개월 안에 등급강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직전 공표된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소급해 조정하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대림산업 관련 조사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규정에 따라 가장 빠른 9월 초에 예정된 동반위 본회의에서 의결해 등급강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순으로 매겨진다.

지난 6월 발표에서 2018년 등급에 대해 '최우수'를 받은 대림산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두 단계까지 등급강등이 가능하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 적지 않은 위법행위가 발견된 만큼 본회의 전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대림산업을 한 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는 2015년 4월부터 3년간이고, 동반위의 '최우수' 평가는 2018년에 대한 것으로 시차가 다소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회사는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반위는 2017년 평가 당시 현대위아(우수→양호), GS건설(우수→보통), 그리고 2018년 평가에선 두산인프라코어(우수→양호), 롯데마트(우수→양호), 현대건설(우수→양호), 한국미니스톱(양호→보통)에 대해 각각 강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이참에 체감도 조사 방식 등 평가체계도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50%를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와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체감도조사에서 하청기업들이 설문조사에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車정비업계, 보험사 불공정행위 여전 '성토'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 열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차 공임비 등 불만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공임비 청구액을 합리적 근거 없이 감액하는 보험사의 행위를 비롯해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열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 주요 건의과제 등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보험사 등 대기업과 부품유통 및 정비업 등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보험수리시 부품비용 및 공임비 청구액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감액 지급하거나, 자동차 사고 과실 판정이 송사로 이어질 경우 비용 지급이 송사 종결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언급됐다.

또 범퍼 수리 등 간단한 정비 시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자동차부품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건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등록번호판 탈착을 위해 매년 행정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비효율적 규제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제기된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관련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김동경 중기중앙회 자동차부품서비스

위원장(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대규모 보험사와의 거래에서 불합리한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감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애국마케팅' 효과 특출

백두산·독도 등 '역사여행 시리즈' 인기

공영쇼핑이 선보인 '역사여행 시리즈'가 인기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에 역사적 의미를 담은 여행 상품이 주목받는 등 '애국마케팅'이 유행하면서다.

20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난 6월 첫 방송한 '백두산 4박 5일' 여행 패키지는 3회 방송만에 주문액 약 1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백두산 여행은 고구려 유적지 관광도 포함돼 그

의미를 더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12일 방송된 '울릉도·독도 2박 3일' 상품은 1회 방송만에 주문액 약 9억원을 달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3월 문정 방송과는 달리 독도 여행을 선택 관광이 아닌 필수 코스로 포함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공영쇼핑은 역사여행 시리즈의 인기로 힘입어 오는 21일 오후 10시 45분 '중경 임시정부·장가계 4박 5일' 여행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여행에서는 중경(충칭)에 위치



공영쇼핑이 21일 선보일 '중경 임시정부·장가계 4박 5일' 여행 이미지.

한 항일운동의 본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를 둘러본다. 상하이부터 중경까지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침반의 길' 박물관도 일정에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경동나비엔, KS-PBI '최고 브랜드' 선정

(프리미엄브랜드지수)

가스보일러·온수매트 부문서 인정

경동나비엔은 '2019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가스보일러 부문과 온수매트 부문'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평가 제도다. 2008년부터 매해 10만 표본 이상의 대규모 국내 소비자 조사를 통해 산업별로 최고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닌 브랜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나비엔 메이트는 2016년 신설된 온수매트 부문에서 최초의 수상 브랜드로 선정된 이후 4년 연속 수상했으며, 가스보일러 부문에서도 새롭게 1위에 뽑히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지난 40여 년간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보일러 산업을 선도해왔다. 특히 가스보일러 보급 초기이던 1988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보일러를 출시하고 보급하며 국가대표 보일러로

서 우리나라 난방 기술과 트렌드를 주도했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에 비해 최대 28.3%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의 주변인 질소산화물을 79%까지 줄일 수 있어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로 평가받는다. 콘덴싱보일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2020년부터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가 법적인 의무 사항이 되기도 했다.

또한, 경동나비엔의 온도 제어 기술력을 집약시킨 나비엔 메이트는 2015년 출시 이후 뛰어난 성능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주목받으며 프리미엄 온수매트로 자리매김했다. 매트에서 정확하고 균일한 온도를 구현하는 것은 물론 좌우 온도를 1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분리난방 기능으로 소비자의 쾌적한 수면을 돕는다. 여러 편의 기능과 안전장치로 소비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기도 했다. 나비엔메이트 전용 어플로 편리하게 온수매트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숙면할 수 있도록 살균모드, 차일드락, 고온주의 안내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레미콘 환경성적표지 획득... 친환경 입증

유진기업·동양, 4개 레미콘 규격 인증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과 동양이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를 추가로 획득하며 친환경 레미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유진기업은 최근 4개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은 2개의 저탄소제품(25-24-150, 25-21-150), 3개의 환경성적(25-27-150, 25-30-150, 25-35-150), 1개의 탄소발자국(25-50-600) 등 총 6개의 레미콘 규격에



유진기업과 동양은 레미콘 규격에 대해 환경성적표지를 추가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원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기업

대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보유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